

# 무가선 관광트램 추진 집중

## 군산시, 폐철도 구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

군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중앙동·해신동 구역 내 폐철도 자원을 활용한 무가선 관광 트램 운영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동백대교에서 군산역에 이르는 약 6.5km의 폐철도 구간에 대한 관광형 트램 운영계획에 따른 것으로 브랜드이미지, 차량, 검수고에 대한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과업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 도시재생과는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국책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해 '군산시 뉴트로 관광트램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중앙동과 해신동 뉴딜사업 지역 내, 동백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인 2.5km 구간에 대해 1단계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후, 향후 사업성과 재원이 확보되면 2~3단계 구간인 군산역까지의 확대 운영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과거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흔적으로 인식되면서 군산의 아픈 근대 역사를 대표했던 폐철도를 이제는 미래와 희망을 나르는 새로운 산업 유산으로 재탄생시켜 군산 시민의 특화자원으로 만들고 여러곳

으로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관광 거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면 자원들의 활용가치가 배가 될 것"이라며 "철도복원-열차운행이라는 단순한 접근에서 미래에 적합한 친환경 모빌리티로서의 무가선 관광트램 운행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도 부합하는 군산시민의 특화된 선도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말 본 용역이 완료되면 열차제작 및 사업구체화를 거쳐 오는 2024년 시험 운행 및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정현울 시장은 지난 18일 신흥공원을 방문해 신흥저수지 주변 산책로와 휴게공간 조성 현황을 살폈다.

## 익산시, 도심 속 힐링 공간 조성 속도

### 정현울 시장, 신흥저수지 주변 산책로·휴게공간 현황 살펴

익산시가 도심 속 수변 자원을 활용한 힐링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신흥공원 일원의 '다이로움 행복정원'을 확장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정현울 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신흥공원을 방문,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 등을 점검하고 신흥저수지 주변 산책로와 휴게공간 조성 현황을 살폈다.

시는 이달부터 기존에 조성된 신흥공원 일원 산책로를 연장하고 조경 등을 정비해 오는 6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향후 신흥공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신흥저수지를 활용한 힐링공간을 조

성해 도심 내 대규모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공원이 조성되면 도심 내 수변공간 내 명소로 탄생하게 된다.

신흥공원은 지난 196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일부가 중앙체육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휴식 공간을 위한 명소로 이용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집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5% 가량 매입이 완료됐다. 시는 매입한 부지에 우선적으로 약 1km 구간의 산책로와 야외광장(2,200㎡), 조경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7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대' 달성 목표

### 군산, 2022년 국가예산 발굴보고회 개최

7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대 달성을 목표로 군산시가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22년 국가예산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사업 48건, 총 사업비 3조 1,751억원 규모의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정책자문단, 전북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별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중앙부처 업무보고, 국가공모사업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의미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포스트코로나 및 정부의 K-뉴딜 기조에 맞춰 군산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포함한 '군산형 뉴딜발굴 전략보고회'를 전북 최초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2년 신규사업 발굴에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준비해 왔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신산업 분야에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미래형 건설농기계 자율작업 기반 구축 여행·체험·문화 분야에 ▲새만금 실감형콘텐츠 Field Test센터 구축 ▲로컬콘텐츠크리에이터 활성화사업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선교역사관 건립 ▲그린환경 분야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새들 허브숲 조성 ▲폐철도 활용 수·목(水·木) 녹색길 조성 ▲금강미래체험관 조성 주민편의분야 ▲비응향 어항구 확장 ▲어항구 물양장 확대 ▲스마트 교통복합 센터 설치 등 48개 사업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국가에

산 사업에 대한 논리 개발 및 당위성 확보와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국·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K-뉴딜 정책방향에 맞고 우리시민의 특색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기 바라며, 그동안 발굴해 왔던 신규 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국가예산 확보는 우리시의 재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시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021년 국가예산으로 총 1조 627억원(전년대비 91억 증가)의 역대 최대 국가예산을 달성한 바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신청 접수

### 군산시 읍면동주민센터

군산시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1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백신 접종 신청 접수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 계획에 맞춰 진행하며, 접종대상자는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 2만2,500여명이 대

상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거주지 포함)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한, 75세 이상 대상으로 한 신청 접수와 접종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일정예약, 희망자에 한해 수송차량 지원, 접종 후 이상반응 유무 모니터링 등 소단계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 진행될 계획이

다. 한편, 백신공급 일정에 따라 접종대상자가 확정되면 접종일시와 장소가 포함된 예약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은 군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월명실내체육관)에서 4월 중 개시될 예정이며, 1차 신청 접수(25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 백신 예방접종센터 26일까지 의료인력 모집

군산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의료인력(간호사)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만18세 이상으로 지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로 간호사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채용 인력은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월명체육관)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및 백신관리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채용된 의료인력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게되며 접종상황 및 백신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접수기간은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로 보건소 방문접수 해야 하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산시민이 적기에 집단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망감과 책임감 있는 지역 의료인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460-323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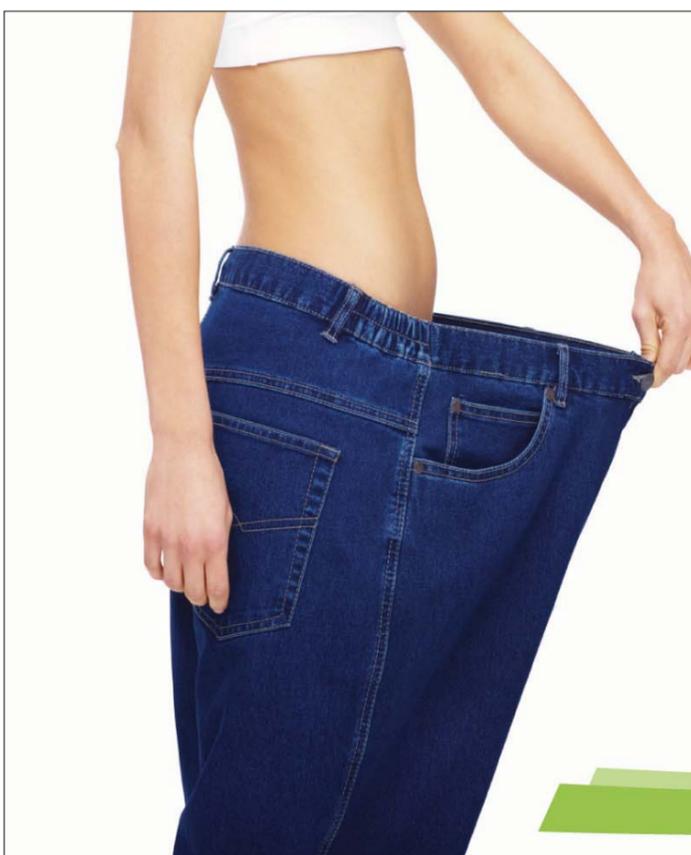
#### 익산경찰서 전국 최초 '안심콜 출입 서비스'

익산경찰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전국 경찰관서 중 익산경찰이 처음 도입했다.

출입기록 수기 작성의 불편과 방문기록지 유출로 인한 개인 정보유출 및 허위 전화번호 작성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방문인들이 익산경찰서 고유 10자리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전화번호와 시간 등이 기록된다. 이 번호는 4주 후 자동으로 폐기돼 개인정보 보호 기능 또한 강화된다. 건담 4원의 통화료는 경찰이 부담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